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장수군지역아동센터에 후원

장수군은 한국마사회 장수목장(목장장 김진갑)이 장수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영순)에 후원금 1,4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 진안군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진안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용품으로 구성된 300만 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00상자를 기탁했다.

군산대, 소외 및 도서지역 'STEM+생각교실' 운영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과학교육원은 2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STEM+생각교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적기업 지원 공로 '인정'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농어촌 태양광 지원·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성과 호평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회적기업과의 상생협력과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단체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에서 공사는 사회적기업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군산과 정읍, 익산 등 농어촌 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해 임직원이 기증한 재활용 가능 물품 1900여 점을 전달하는 등 자원순환형 나눔 모델을 구축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섰다.

이와 함께 각종 용역과 사업용 물품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사회적기업에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제에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의 벽을 넘다...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창의적 현장 실천으로 시민 불편 해소·지역 활력 제고... 우수공무원 4팀·개인 1명 선발

정읍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혁신을 이끈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팀과 개인 1명을 선발해 2일 표창했다.

이번 선발은 각 부서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시민 추천으로 접수된 총 16건의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사전 심사는 실무진 평가와 더불어 직원, 시민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다.

우수 등급에는 △장기 미사육 또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 취소(환경정책과 홍석조, 한혜원)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례(교통과 김현주, 최낙준)가 이름을 올렸다.

장려 등급은 △이용자를 배려한 진입로 개선으로 서부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건강증진과 최환혁, 주원경) △20년 묵은 악취 양계장을 반려동물 상징물(랜드마크)로 조성해 민원 해



결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이끈 사례(축산과 정승우) △현장 중심 행정으로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0(ZERO)을 향한 실무 동행(자원순환과 박숙영, 박상민)이 꼽혔다.



장수군자봉센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성료

장수군자봉센터(이사장이민호)에서는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숙자)와 함께 2일 장수를 두산리마을회관에서 85세 독거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하여 1일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회장 장동엽)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회관에 전달할 썬키스타라벨을 직접 만들고 2일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음식(미역국, 불고기, 잡채, 전, 두부조림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두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을 위한 축하의 덕담을 나누며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장수군 어르신을 위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신상을 준비하고, 생신 축하와 함께 인부를 살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상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남원시보건소, 17일까지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여름철 레지오넬라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근육통, 허약감, 고열, 오한 등이며,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나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등의 경우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시보건소는 대형건물, 병원,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분수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청소와 소독 등 위생관리 조치를 안내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관리를 강화 방침이다.

전북중기청, 제조혁신 위한 AX 간담회·세미나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 회원사, ㈜심플팜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촉진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출범한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교류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북지역 제조혁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 주재로 지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중기청과 전북테크노파크는 유관기관 간 연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전주지사, 증양지사, 남원지사, 일성지사, 심천지사, 인후지사, 김제지사, 진안지사, 삼천지사, 송천지사, 남원지사, 정읍지사, 팔복지사, 송전지사, 장수지사, 서신지사, 군산지사, 부안지사, 무주지사, 호지지사, 익산지사, 고창지사.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 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